

종교개혁으로 가는 루터의 영적 순례

Anfechtung 개념을 중심으로

임도건
(역사신학)

들어가는 말

올해로 종교개혁 481 주년을 맞고 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팎으로 신학적/사상적/문화적 도전을 받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뿌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생긴 오늘날의 영적인 안락사 현상은 종교개혁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복음을 받은 지 1세기를 갓 지난 한국교회는 성경중심의 신앙을 외치지만 아직도 사회적 인습이나 관례를 뛰어 넘기에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역부족이며, 따라서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위해서는 다소 세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게 변하는 사회의 변화와 욕구들은 많은 이단들이나 신흥종교의 등장을 허용했고 이에 순기능을 감당하려는 정통 개혁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어빙 크리스톨은 말한다. 정통은 자신의 할 일만 고수하는데 정통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진정한 정통의 진면목이 좌우된다. 이단은 어느 시대 어디에나 있었다. 이단들을 잘 다루어 공생(共生) 하든지 아니면 잘 못 다루어 공사(共死)하는지가 바로 정통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통이라 자부하는 우리는 다만 이단의 반사적 조건 안에서 정통성을 찾지 않고, 새 역사 만들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창조적 파괴를 단행해야 하겠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고 주장되는 것이다. 1517년이래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런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실낱같은 작은 외침과 주장들로 일관하여 오늘날까지 흘러내려 개혁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 왔다. 우리는 이미 그 큰 강줄기 속에서 상수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샛강이 병들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이 샛강의 오염이 큰 대류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미력에 불과하지만, 샛강을 살리지 않는다면 며지않아 한 바탕 큰 댐 공사를 치러야 할 판이다. 이름없이 흘러온 작은 샛강들. 다시 모여 종교개혁의 강물을 회복시켜야 한다.

프로레고메나(PROLEGOMENA)

중세의 많은 사람들은 큰 우물의 물이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원래 그 우물엔 주인이 없었는데, 당시엔 어엿이 주인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물을 먹는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이리만큼 중독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오랫동안 이 물맛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한 수도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우물물이 변질되어 갈 때 새 우물을 파던 인물이 있었다. 그는 큰 우물이 썩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렇다고 그 물에 중독되어 마시던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의식하지 않았다. 사소한 오해도 있었지만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새 물을 맛보기 위해 작은 우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긴 세월의 중독을 벗는 데에는 기간이 필요했다. 새로 판 우물은 서서히 틀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우물 밖으로 나와 땀을 씻고 보니 큰 우물 주위에는 주인행세를 하던 이들 뿐이었다. 이 작은 우물의 주인공은 새 우물의 청량함을 애써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시며 직접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수도사는 그 우물의 주인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선전광고도 하지 않았지만 물은 마신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알려지게 하고 있었다.

1. 루터의 안페히퉁(Anfechtung) 개념 연구

한국의 장로교 역시 독일 종교개혁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비중만큼 루터의 업적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타 교파의 창시자라는 교리적 선입관 때

문일까? 아니면 산재해 있는 현안과제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관심부족 때문일까? 아무튼 종교개혁의 달에 즈음하여 루터를 다시 보는 것도 유익할 듯 싶다.

종교의 개혁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역사적으로 교회의 간신은 교회 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적 충격(new religious impulse)으로 이루어진다”¹⁾ 루터의 분출을 통해 연쇄적으로 일어난 16세기의 종교개혁들은 이런 새로운 종교적 충격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그 중에 루터의 경우는 수도원 조그만 방에서 경험한 극적인 구원체험의 결과였다. 개혁자 루터의 사상에 관하여는 100권이나 되는 그의 저술²⁾ 외에도 ‘루터 연구사’라는 별도의 논문이 요구될 만큼 자료의 분량이 매우 많다.³⁾

그의 전집이 매우 방대하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배경, 경험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일관된 사상의 흐름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생애와 사상이 당 시대의 실존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실존적인 삶의 배경을 무시한 연구가 생명력을 제공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루터 당시의 주변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사상 이해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최근 학계의 동향은 종교개혁을 1517년 10.31. 95개 조항을 Wittenberg 성당 건물 벽에 걸 역사의 단회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유럽의 각기 다른 지역과 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위기 상황의 종합으로서, 교회안팎에서 모두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기에, 때마침 등장한 한 수도승의 몸부림을 통하여 마침내 교회 전체의 분열을 초래한 영적 운동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런 해석의 배경에는 비 독일계, 비 루터파 학자들의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을 루터라는 슈퍼스타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 종교개혁이 하나의 기독교권 안의 신화로 채색될 수 있다는 염려에 근거하고 있다. 루터의 역사적 업적을 과소평가하자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조명해 보자는 의도일

1) T. M. Lindsay, *History of the Reformation*, Vol.1. (Edinburgh: T & T Clark, 1963), 191.

2) Timothy F. Lull ed., *Martin Luther's Basic Theological Writings* (Fortress Press, Minneapolis, 1989)을 참조하라.

3) 이 중에 Gerhard Ebeling,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Fortress Press : Philadelphia, 1970)라는 책이 제일 탁월하다. 루터에 대한 교육적 배경, 심리적 묘사, 문자와 영에 대한 상관성, 윤법과 복음, 윤법의 두 가지 기능, 믿음과 사랑, 노예의 지와 자유, 김취이신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 두 왕국, 십자가 신학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핵심적인 접근들을 보여주고 있다.

것이다.⁴⁾

과연 종교개혁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학자들의 제 견해들을 살펴보자. 종교개혁이 르네상스의 종교적 표현이라는 견해와, 경제적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의 산물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종교개혁이 더 깊은 종교적 추진력이었다는 견해가 있으며, 끝으로 루터라는 인물의 심리적/신학적 추적의 결말이 곧 종교개혁 이었다는 견해도 있다.⁵⁾

그 중에 Harold J. Grimm 의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개혁자의 마음속에는 경제적 혹은 다른 어떤 동기보다 더 신학적인 우선성이 자리잡고 있다. 그 무엇보다 영적이고 종교적인 동기가 최우선한다. 우리는 의심없이 이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루터 자신의 진술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종의 공포를 느끼는 자가 매사에 진지하듯이 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심연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한다. 나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일을 지휘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하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다. 나는 의지나 의도하기 보다는 돌발적으로 이 동요에 반응했을 뿐이다. 이 모든 일에 엄히 하나님이 내 중인이시다.”⁶⁾

위의 진술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루터가 제도적이거나 행정적인 면에서

4) 이 분야에 관해 R. W. Scribner, *The German Reformation*, 임도건 역 (서울:은성 출판사, 1996)을 참조하라.

5) 자세한 내용은 임도건, *종교개혁의 역사와 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204–6. 을 보라. 종교개혁은 유럽전역에 심어진 영적 운동이 종교적인 표현으로 분출된 사건으로 전적으로 자유를 희구한 운동이었다(Wilhelm Dilthey). 종교개혁은 외적인 힘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시, 공 가운데서 일어난 진보된 자본주의자에 의해 만들어진 필요요 결과였다(P.C. Gordon Walker). 독일 안에서 초기 봉건주의의 봉괴가 실제로 독일사회 전체를 혁명화 했는지는 의심스럽다(Hajo Holborn). 종교개혁은 기본적인 중세원리의 봉괴에서 비롯되었다. 교회의 심장을 차지하던 권세가 대치되기 시작한다. 개혁 전야의 서구 기독교와 카톨릭 안에도 이미 개혁적인 요소들이 있었다(Joseph Lortz). 교회를 반대하던 독립적인 두 조류가 홀려갔다. 하나는 명백한 권력남용 앞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몸부림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의 외적인 표상에는 관심이 없는 대신 종교의 본질이나 교회생활의 영적 뿌리를 다루는 것이다. 이 두 조류는 루터라는 인물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로 합류되기 시작했다(Gerhard Ritter). 루터의 신학적 진보의 특징은 모든 인간이 취해야만 하는 심리적 성숙의 과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단계일 뿐이다(Erik H. Erikson).

6) Lewis W. Spitz, *The Reformation Basic Interpretation* (Heath & Company: Lexington, Massachusetts, Toronto, 1972), 15. See also the Same book. 171–79.

조직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거사를 치르려고 한 흔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다만 구원에 대한 갈망,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져 온 중세교회의 가르침들이 자신의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귀결이었을 것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가기까지 여러 요소들이 작용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것들만 살펴보겠다. 루터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에 시대적 환경과 실존적 상황에 전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역시 중세 후기 사상들에 익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톰 바르두스 (Petus Rombardus, 1100–1160)나 아퀴나스 (Thomas Aquinas, 1225–1274)의 교의학이 절정을 이루던 중세 스콜라 신학만 해도 신앙생활은 제도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간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을 추구하는 노력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종교적 주관주의를 부르짖는 신비적 경건운동이요, 다른 하나는 합리적 객관주의를 주장하는 스콜라주의 신학이었다. 구원의 내적 확신에 관하여 전자는 영적인 체험으로 보았고, 후자는 합리적인 이해로 보았다. 특히 실재론을 붕괴시킨 유명론의 등장으로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존중되기 시작했고,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의 체험이 중요시되기 시작했다.⁷⁾

이같은 유명론 특히 옥캄주의는 루터의 사상, 즉 믿음에 의한 칭의와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서 성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한편 독일을 중심한 북 유럽의 르네상스 인문주⁸⁾ 역시 루터로 하여금 명상적이고 경건한 종교적 보편주의의 특성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루터의 신학사상에 기틀을 마련한 것은 독일의 신비주의였다. 그는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격화의 가능성(신과의 연합이 가능하다고 믿는)을 가르친 에크하르트와 요한네스 타울러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로마서 강해의 ‘감추이신 하나님’

7) Tony Lane, *Christian Faith* (Harper & Row: San Francisco, 1984), 99–100.

8)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도시적이고 시민적이었다면 알프스 지방 북부 유럽의 르네상스는 학구적이고 비판적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로마문화가 뿌리내렸던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세의 기사 문학과 스콜라 철학, 그리고 고딕건축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지만 독일은 고전문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문화에 대해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열광적일 수 없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고대 기독교와 플라톤의 철학을 접목을 시도한 반면, 북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원시기독교와 그것의 근거인 성경의 원전에 더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유럽의 인문주의를 Christian Humanism 혹은 Biblical Humanism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민석홍. 서양사개론 (서울: 삼영사, 1984). 355. 을 보라.

님’ 개념과 ‘시편 강해’, ‘노예의지론’ 등에 잘 나타난다. 그러면 유명론과 신비주의의 배경에서 태어난 안페히통 개념은 무엇인가?

Anfechtung 이란 ‘유혹’ 또는 ‘죄인 위에 내리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의한 공격’(It was in essence an attack on the sinner by God in His holiness and righteousness)이요⁹⁾,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는 느낌이며 구원에 대한 절망감’(Despair about salvation and the sense of being assaulted by demonic power)을 나타내는 것이요¹⁰⁾ ‘죄투성이요 터끌 같은 불완전한 인생이 거룩한 전능자 앞에 설 때 느끼는 기분이며¹¹⁾,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련하시려고 보내는 시련이나, 인간을 파멸하려는 마귀의 공격으로서, 인간의 영혼에 염습하는 모든 의혹, 혼돈, 고통, 두려움과 공포, 절망감, 고독 및 좌절감¹²⁾ 같은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안페히통은 라틴어 ‘tentatio’의 독일어 역으로 원래 고대 군사용어였는데, 루터는 이 말을 가지고 인간의 심령이 가진 복잡한 고민을 표현하려 했다. ‘tentatio’를 번역함에 있어 ‘Versuchung’ 대신에 ‘Anfechtung’을 사용한 이유는, 이 낱말이 격렬한 공격성을 더 잘 표현하기 때문이었다.¹³⁾

종합해 보면 안페히통이란 인간존재의 비관, 창조주/구속주로부터의 격리감, 절망적인 우울과 고독에 따른 고통, 참회와 회개의 체험,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에로의 희열 등이 교차되는, 마음의 깊은 경지를 뜻한다. 하지만 本稿에서는 루터의 안페히통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예정에서 탈락한 유기된 상태를 느낌) 및 그에 따른 헛된 선행(善行)의 몸부림의 방황과 연속,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의(義)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9) J. Atkinson, *The Great Light: Luther and Reformation* (Leicester: The Paternoster Press, 1968), 41–42.

10) 김운태, “루터의 개혁사상 형성에 관한 사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6), 21.

11) R. H. Bainton, 「마틴 루터의 생애」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42.

12) loc. cit.

13) 지원용 편, 「루터 선집, 제7권—온혜의 해설자」 특별부록: “십자가 신학과 Anfechtung 이해”, (서울: 커콜디아사, 1986). 609.

2. 안페히통 개념 형성의 기저

가. 공포를 조장하는 중세 카톨릭의 체제

중세 체제는 당시 영적 세계를 온통 공포와 불안으로 이끌었고, 교회는 그런 공포 심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교회에 예속시키고 묶어 놓았다. 이 체제 안에서 의인(義認)의 과정은 법적 행위가 아니라 점차적 회복의 과정이었다. 즉 성례를 통한 주입된 은혜(gratia infusa)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데, 이는 불완전한 회개(attributio)를 완전한 회개(contritio)로 변화시키며, 형성되지 않은 신앙(fides informis)을 형성된 신앙(fides formis)으로 변경시키고, 그의 선행을 온전한 선행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중세의 가르침은, 죄의식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선행을 통한 자력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었으나, 결과는 끝이 없는 미로로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경향은 중세 말기에 전염병처럼 만연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경건한 자들에게 까지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불안은 예술 및 성지순례에서, 유물수집과 성상숭배에서, 기도의 양(量) 또는 돈의 희사나 속죄권의 매입에서, 금욕적인 자기고행을 포함한 자기양심을 진정시키려는 온갖 시도¹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루터도 예외는 아니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그로서는 이 불안을 더 심각하게 느끼며 괴로워했는데 이것이 그의 안페히통을 더 가중시켰던 것이다.

나.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만스펠트 탄광촌에서 근면한 광부인 아버지와 경건한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유년기를 빠져린 가난 속에서 자랐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 지글러는 루터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고, 당시 탁발 수도승이 행하던 덕행의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진실한 참회의 성격, 엄격한 영적인 겸비,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의식 등을 심어주었는데, 이것 역시 안페히통

14) 이것들은 모두 죄사함의 방편들이었다. 로마교회는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 죽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peccata mortalia)와, 현세 속에서 속량이 가능한 가벼운 죄(peccata venilia)가 그것이다. 용서될 수 있는 죄를 위해서는 연옥이 있고, 연옥에서 정결케 된 사람을 위해서는 하늘나라가 있으며, 성자에게는 이미 땅 위에서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데 이 모든 단계의 첨경이 바로 수도사와 사제가 되는 것이라 가르친다.

형성의 작용요인으로 보인다.¹⁵⁾

뿐만 아니라 그의 교육환경도 안페하퉁 형성에 한 몫을 차지한다. 그가 수학한 에르푸르트 대학은 중세교회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교수진들은 수호성자의 보호아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로마교회와 배치되는 것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겠다고 서약한 자들이었다.¹⁶⁾ 이는 중세시대의 교육목적이 교회의 가르침을 주입하고 교회와의 마찰을 피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교육과정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 교회에 대한 경외심, 그에 따른 교황 승배를 주입하도록 짜여진 것임을 의미한다.¹⁷⁾ 이런 환경에서 교육받은 루터는 그리스도를 엄격한 분노의 심판자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런 놀림은 당시 여러 책들 그 중에 고전 [버질],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베스트 셀러였던 [죽음의 기술, Art of Dying]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⁸⁾

다. 죽음에 대한 공포

르네상스 예술의 주제는 죽음이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지옥 도피기술이었다. 루터 역시 이런 시대 분위기에 젖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지오토(Giotto)의 그림 ‘최후의 심판(The Last Judgment)’에서 받은 충격이 크다. 작가들은 종종 화가들의 그림을 글로 묘사하곤 했는데, 지오토를 언급한 단테의 신곡이 그 좋은 예가 된다.¹⁹⁾

이런 시대적 영향에서 자란 루터는 죽음을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양심의 공포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있는 고통 같은 것이었다. 죽음을 주제로 다뤘던 르네상스 예술 역시 안페하퉁의 형성에 일조 했다고 볼 수 있다.

15) Ian D. Siggins., *Luther and His Mo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1), 10–11.

16) T. M. Lindsay, *op. cit.*, 197.

17) R. H. Bainton, *op. cit.*, 28.

18) Ibid., 30.

19) Francis A. Schaeffer, 「그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56–7. 그리고 민석홍, 상계서, 333.을 보라.

중세에 만연한 죽음의 춤, 해골의 춤 등이 교회의 벽화나 목판화 등으로 새겨졌는데, 이는 중세 문화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 신학의 영향

옥캄주의가 루터에게 한편으로는 개혁주의로 가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안페하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왜냐하면 옥캄의 신학에서는 사람이 뜻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의지와 예정을 주장하는 이율배반성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⁰⁾ 환언하면, 절대적 의지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권위에도 매이지 않는, 절대적으로 초월한 절대 자유를 가진 분으로서, 독단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예정하여 선택하실 수 있다는 옥캄의 주장이 루터를 괴롭혔던 것이다. 더욱이 선행에 계속 실패한 루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에 필요한 힘을 넣어 주시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루터는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자신이 세상에 태어남을 여러 번 한탄하였다.²¹⁾ 이같은 ‘절대적 의지로서의 하나님’ 개념은, 그로 하여금 예정의 안페하통에 빠지게 했다.

3. 안페하통에 대한 루터 자신의 이해

루터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시험과 자기가 받은 안페하통을 비교함과 동시에, 성경의 인물 중에 시련을 통해 승리 얻은 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하곤 했다. 예를 들어 루터 자신은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였다... 만일 누가 그 고통을 십분의 일이라도 경험한다면, 그는 완전히 파멸되고, 빼는 재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로, 그와 모든 피조물에게 다가오며, 어떠한 도피처나 위로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우리를 고소할 뿐이라”고 했다.

그때에 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나이다’(시31:22), ‘나를 당신의 노로 징계치 마소서’(시6:1)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자신의 체험을 사도 바울의 안페하통(고후12:2-10)과 연결시키고 있다.²²⁾ 그는 이 안페하통의 비중을 다음 예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0) P.A. Watson,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원리」 이장식 역 (서울: 커콜디아사, 1962), .42.

21) Ibid., 43.

22) Bernard Loshe, *Martin Luther*, Robert C. Schultz, trans., (George Street, Edinburgh: T & T Clark, 1986), 24-5.

그어진 직선 위에 공(ball)하나가 굴러 지나간다고 가정해 보라. 이때 접촉된 선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 점(point)은 그 공의 전체 중량을 다 감당하지만, 선과 만나는 공의 단면은, 전체가 아닌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흥수 가 지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다. 끔찍 한 신음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향방없는 절규요, 아주 벌거벗은 구조요청 (stark-naked desire for help)이 될 것이다.²³⁾

이제부터는 개혁 이후의 작품인 시편 강해에 나타난 안페히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시 32 편에 나타난 루터의 안페히통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3절 상) – 이 말은 즉 나는 내 죄를 깨닫기를 원치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했으며, 죄의 기만성을 보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3절 하) – 이 말은 내가 죄를 고백하지도 은총을 구하지도 않았으므로, 내게는 언제나 나를 연약하게 하며, 비참하게 하고, 안식할 수 없게 하는 괴로움과, 악한 양심밖에는 어떤 평화도 없음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4절 상) – 이런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서 곤봉을 들고, 내 위에서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만 생각하는 악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어떤 마음의 평화도 없다는 고백이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 이런 괴로움은 사람의 신체를 쇠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며, 심령의 정신과 사람의 용기를 말라 버리게 하는 것이다.²⁴⁾

나. 시 102 편에 나타난 루터의 안페히통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2절 상) –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진노의 표시이며,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은혜의 표시이다.

‘주의 귀를 기울이사(2절 하) –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 당할 때, 나의 치지를

23) loc.cit.

24) 지원용 편, 「루터 선집 제2권」 루터와 구약(2), (서울: 천콜디아사, 1983), 132.

들어주소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괴로운 심령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귀기울임은 그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거나 하나님의 귀전에까지 도달할 만큼 충분히 강하게 요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 내려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이해하였다.

'내 뼈가 냉과리 같이 탔나이다' (3절 상) – 불이 모든 비옥함을 빼앗고 사물을 바싹 말리듯이, 심신의 고통도 영혼의 모든 기력을 말리며 허약하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의 탄식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5절) – 내가 탄식하며 나의 악한 본성과 싸우며 고통을 당하므로, 육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19:20)라고 한 것처럼 나도 가죽과 뼈밖에 남기지 않았나이다. 하지만 자신을 견책하지 않으며, 자신의 어떤 점이 잘못 인가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뼈는 살가죽에 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혈색과 정력을 가지고 있으며 계다가 살찐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6절 하) – 벼락받고 멸시받은 그는 자기 자신을 외로운 새에 비유하여, 낮에는 나오지 않는 새로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와 교제하지 않고, 낮에는 즉, 세상의 명예에 있어서는 그에게 잔혹하게 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광야의 밤과 같이 외로운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7절) – 밤을 새며 깨어있다는 것은 영원한 선을 굳게 붙잡고 찾으며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중에는 다른 모든 이들은 잠자고 있으며,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붕 위의 참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세상이란,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둘려 쌓여 있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하나의 집과 같으며, 자신만 홀로 집밖에서 지붕 위에 올라 아직 하늘은 아니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지도 상태를 바로 지붕 위에 거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생각하기를 세상은 내 밑에 있고 하늘은 내 위에 있으며,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삶과, 영원한 삶 사이에서 살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깊은 외로움에 방황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²⁵⁾

25) Ibid.. 167–69.

다. 시 130 편에 나타난 루터의 안페히통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었나이다’(1절) – 이런 부르짖음은 그가 어떤 심연에 놓여 있는지 알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생기지도 않습니다.

‘주여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2절) – 당신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필사적인 부르짖음을 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밖에 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귀로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유의하소서. 이런 표현은 어떤 피조물도 고난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의 표현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소리에 대해 싸움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를 표현한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3절) – 주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것들을 눈여겨 살피시며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홀로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외에는 아무도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3절) –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관대하며 나의 죄를 유념치 않고 용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감찰하시고 기억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면에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죄를 씌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못 본체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죄에 대한 응징을 받지 않고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간구하지도 않으며, 간구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²⁶⁾ 이런 표현들은 루터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했는지 잘 보여준다.

라. 성금요일 설교에 나타난 루터의 안페히통

우선 루터는 주의 고난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약 네 가지로 지적하고, 나아가 올바른 고난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그 잘못된 견해들이란 첫째,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에 대해 탄식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상적으로라도 한번 생각한다는 것은 최소한 1년 동안 금식한다거나 매일 시편을 묵상(기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 셋째, 집례자나 참여자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행위 자체로 효력을 갖는

26) *Ibid.*, pp. 180–81.

(Opere operati, non opere operantis) 미사는 우리의 공로와 가치가 없어도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그리하여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넷째,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를 따라온 여인들이 주를 동정하면서 울었던 일인데²⁷⁾,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견해들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명상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미사 자체는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은 결실없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한 여인들이 주를 위해 운다고 한들, 주님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주께서 ‘나의 순교를 보고 너희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으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를 배우도록 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는 주의 고난을 잘 명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자신은 강팍하고 사상이 빈곤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며 공포로 얼어붙지도 않고 그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함 받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의 고난을 이생에서든 저생에서든 당해야만 하고 다른 길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에 공포에 빠져 떨고 전율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것을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임종 때에 그것을 깨닫는 일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정돈하여 효과적으로 주의 고난을 명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²⁸⁾

성 베르나르는 잘 고백했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네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심판 자리에,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내대신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을 보기까지는 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상상하였고, 하늘에서 내게 내려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유익은 인간이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 지식을 알면 절망스런 자신 앞에서 공포로 얼어붙고 자신을 죽일 정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27) 지원용 편, 「루터 선집 제10권」, 설교자 루터 (서울: 컨콜디아사, 1987). 203.

28) Ibid.. 206.

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몸과 영혼에 있어서 무서운 죽음을 당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순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²⁹⁾

루터는 여기에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필연코 안페하통에 이르게 하며 그 안페하통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궁휼을 구하게 된다고 단언한다. 세 편의 시편 설교와 성금요일에 나타난 동일한 교훈은, 자기의 의와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식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참하고 쓰라린 고통만을 가중시키며,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안페하통은 인간이 자신의 죄와 악한 양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루터는 인간에게 안페하통이 있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사모하도록 주어진 것이요, 인간은 그런 고난을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궁휼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4. 개혁의 밑거름이 된 안페하통의 의의

지금까지 루터가 경험한 안페하통 개념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경건한 어머니의 가르침, 옥캄주의의 영향, 독일 신비주의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영향,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조장시키는 중세교회의 가르침 등이 그를 세뇌시켜 두려움의 심연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중세인들 모두가 그랬듯이 루터도 스콜라주의의 합리주의 사다리, 신비주의 사다리 그리고 일반 카톨릭 신도들이 믿고 있었던 도덕적 선행의 사다리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도달하려 했다. 루터 역시 전형적인 중세기의 사람으로 중세교회가 정해놓은 구원의 길을 따랐던 것이다. 사실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로 통하는 지름길임을 믿고 가르치던(Monasticism was the way par excellence to heaven.) 시대 속에서 루터는 아퀴나스의 가르침 즉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제2의 세례라 하여, 죄인이 처음 세례 받을 때의 무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말을 믿으

29) loc.cit.

면서, 위에 언급된 세 사다리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³⁰⁾ 그가 이같은 결심을 한 것은 육신의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였으며³¹⁾, 하늘의 공포에 사로잡혀 마지못해 소명에 응한 것이었다.³²⁾

수도원의 생활은 하루 일곱 번의 기도, 금욕과 자기학대, 갖은 형태의 고난으로 점철되었다. 루터는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실천하려 했다. 금식, 철야, 덮어도 되는 담요를 팽개쳐 거의 얼어죽을 뻔한 일 등,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때로는 평안한 느낌을 받았을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 고통과 의심, 공포와 불안은 점점 더 심화되기만 했다. 뿐만 아니라 솟아오르는 죄의식을 고해했는데, 그때마다 일곱 가지 큰 죄들(교만, 탐심, 욕정, 화, 과식, 시기, 태만)과 십계명에 비추어서 자신의 일생을 검색했다.³³⁾

죄를 용서받으려면 고해해야 되고, 고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생각하고 기억해 내야만 했다. 그러나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않는 죄를 고해할 수는 없었다. 고해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 낱낱이 고백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끝없는 일이었다.

드디어 그는 죄란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자기의(自己義)’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따라서 개개의 죄를 참회하는 것은 뿌리의 근원을 남겨둔 채 겉가지만을 자르는 격이어서, 중세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철저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인간 성품 자체가 부패되었고, 따라서 용서받아야 할 대상은 개개인의 악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자체임을 철저히 깨달은 것이다.

더욱이 로마에 있는 성직자들의 타락성을 보고 신부의 자격미달과 경박성에 대해 철저한 모순과 회의를 느꼈다. 그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신비주의의 사다리를 타기로 결심한 것이다. 즉 수난에 대한 명상과 모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포기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³⁴⁾

신비주의자들은 영혼의 밤중을 지나면서 환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반면 자신은 너무 불결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神-人 합일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30) B. Loshe, *op. cit.*, 22-23.

31) M. Luther, *Tisch-reden* (Table Talk), 4. 303., 이형기, *op.cit.*, 17. 에서 재인용.

32) W.A 「Weimar 루터 선집」 8. 573. 이형기, *op.cit.* 에서 재인용.

33) Bainton, *op.cit.*, 54.

34) P. A. Watson, *op.cit.*, 53.

이런 철저한 무기력 속에서 루터는 당시 카톨릭 체제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제공해 준 모든 방도, 즉 세 개의 사다리에 대해 빼저린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그는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처럼 육체와 영혼이 극도로 피폐해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스타우피츠는 루터에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네게 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하나님께 한을 품고 있다고 말하면서’³⁵⁾ 하나님과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 사이에 있는 영구적 대립의 심연에서 고통하는 루터에게 세 가지 결정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첫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참된 회개의 시작에 불과하며 자기의 당위적이고 허위적인 사랑은 위선이라는 것, 둘째, 예정의 안페히통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것, 셋째, 성경을 연구하도록 격려한 것 등이다.

스타우피츠의 조언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 자신의 영적 고민은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받을 때”, 비로소 안페히통은 해소된다는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5. 맷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루터의 안페히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즉 하나는 죄와 율법의 안페히통으로서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 볼 때 겪는 내면적 고통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양심은 자신을 죄 가운데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다. 이때 율법은 양심에 대한 규범과 권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자기의 처지를 변호하며 고소에 대한 응답을 요구한다. 그 양심의 고통은 마치 화살이 찌르는 것 같으며, 양심은 율법의 고소를 긍정함으로써, 율법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추격하여, 이 세상 안에서 자신의 설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여,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일으켜, 자신은 도저히 구제불능의 비참한 존재임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예정의 안페히통인데, 이는 의인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알려는 투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인간을 영원한 선택(구원과 형벌)으로 은밀히 작정해 두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고통이다. 이 고통은 죄와 율법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까지 포함

35) *Tisch-reden* (Table-Talk), N.R. .22., P. A. Watson, *op.cit.*, 45.

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아무 이유없이 적으로 나타나며, 그때는 절망감에 빠져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독하기 시작하며, 죄인을 쳐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움과 분개로 저주하기까지 한다.

이같은 루터의 안페하통은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과, 영원한 예정을 작성하신 하나님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고통이었다. 그는 벼림받은 자의 입장에 서서 소름끼치는 고통을 경험한 것이다. 그러나 시편 22편을 연구하던 중 자신의 영적 고민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페하통이었다는 것에 놀라면서 상당한 위로를 얻었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있었다. 자신의 안페하통이야 죄 때문에 겪는다지만, 죄없는 거룩한 주께서는 왜 안페하통을 경험하셨어야 했는가 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에서 해답을 찾았다. 죄가 없으시면 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우리의 소외감에 동참하신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었기에 인류와 함께, 거룩한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인류와의 일체감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다.

이것이 루터에게 새롭게 부각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무지개 하늘 위에서 죄인의 심판주로 생각되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벼림받은 자로 바뀐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죄인과 화해를 찾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용해된 것이다. 드디어 루터는 그가 평생토록 추구하던 자비로운 하나님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찾은 것이다. 수없는 세월을 고민해 오던 루터의 안페하통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소된 것이다. 마침내 그는 이 안페하통의 해소를 참 복음의 발견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의]라는 저술을 낳을 수 있었다.

실로 루터에게 있어서 안페하통은 그의 생애와 사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루터 자신의 영적 고민인 동시에 종교개혁의 발판을 구축한 신학적인 문제였다.³⁶⁾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라는 항존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최종적인 해답임을 깨달으면서...

36) Bainton, op.cit., 62.